

The Education on Religion in Early Ch'öndogyo: Focusing on Home College Lecture in 1930s

Namjin Heo¹, Sunghwan Cho^{2*}

^{1,2}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education on religion was practiced in Ch'öndogyo in the 1930s, focusing on the "Religion Course" in Home College Lecture.

[Contents] In 1908, Ch'öndogyo began to organize a curriculum for catechetical and modern education in earnest. Initially in the form of "Training Center," they are developed into schools called "Shi-il School" in the 1920s, and in the 1930s they organized a kind of "Home Schooling Curriculum" called "Jasu College". The Jasu College compiled a textbook, Home College Lecture, and disseminated advanced knowledge on Chinese religion, Wester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art to the public. In particular, the "Religion Course" shows a Ch'öndogyo perspective, defining the concept of religion based on "Humans are Heaven".

[Conclu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rn education system and curriculum of Ch'öndogyo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gradually systematized from "Training Center" to "Shi-il School" and finally to "Home College." Second, "Religion Course" in Home College Lecture introduces Chinese religion in the form of a modern philosophy on the one hand, and Korean interpretations of Ch'öndogyo on the other.

[Keywords] Ch'öndogyo, Education on religion, Training center, Si-ill school, Home college lecture, Lee donhwa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6A 3A02079082).

* **Corresponding to** Sunghwan Cho (HK professor,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 Social Sciences)
E-mail : hansowon70@nate.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1930년대 천도교의 종교 교육: 『자수대학강의』 「종교과」를 중심으로

허남진¹, 조성한²

^{1,2}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1930년대에 천도교에서 종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수대학강의』의 「종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천도교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천도교 이외에 어떤 종교를 가르쳤는지, 나아가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 이 작업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천도교의 강습소, 시일학교 등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주목하였다. 천도교에서는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리 교육을 위해 근대 교육 조직과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습소’의 형태로 시작했다가, 1920년대에는 ‘시일학교’라는 명칭의 학교로 체계화되었고, 1930년대에는 ‘자수대학’이라는 일종의 ‘독학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자수대학에서는 『자수대학강의』라는 교재를 편찬하여, 대중들에게 중국의 종교, 서양의 철학, 정치, 경제, 예술 등의 고급 지식을 보급하였다. 특히 「종교과」에서는 ‘인내천’의 관점에서 종교 개념을 정의하는 등 천도교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교에 대한 설명에서도 ‘하늘’과 관련된 사상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천심(天心)’과 같은 동학적 개념으로 공자의 사상을 해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도교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형성된 도교라기보다는 한국인이 이해한 ‘선교(仙敎)’를 말하고 있어서 이해의 폭에서 차이가 있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근대적인 교육 체제와 커리큘럼은 강습소에서 시일학교로, 나아가서 자수대학으로 점점 체계화되어 갔다. 둘째, 『자수대학강의』 「종교과」에서는 한편으로는 중국 종교를 서구적인 철학의 형태로 소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천도교 내지는 한국적인 해석을 가미하고 있다. 셋째, 『자수대학강의』의 강좌에서 「종교과」 이외에는 모두 서양에 관한 강좌인데, 이에 대한 분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천도교, 종교 교육, 강습소, 시일학교, 『자수대학강의』, 이돈화

I. 서론

천도교는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역자 양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해 강한 열의를 보였다. 당시에 천도교에서 활동한 많은 지식인들은 교리강습소나 사범강습소와 같이 천도교가 운영한 교육기관에서 양성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천도교의 문화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당시 교육에 활용되었던 교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2001년에 성주현이 쓴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민족교육: 侍日學校를 중심으로」(Sung, 2001a)와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 천도교를 중심으로」(Sung, 2001b), 그리고 2021년에 나온 성지운의 「1910년대 천도교 교리강습소의 교육활동」(Sung, 2021)이 있는 정도이다. 먼저 성지운은 1911년에 나온 『천도교강습소 규정 부소칙(附所則)』에 실린 「천도교강습소칙(天道敎講習所則)」을 활용하여, 당시 천도교의 강습소 커리큘럼을 도표로 소개하였다(Sung, 2021: 218-219). 이 도표를 보면 1910년 전후에 천도교 강습소에서 어떤 과목을 몇 시간 동안 가르쳤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천도교 교육활동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 천도교에서 공표한 「종령(宗令)」과 1911년에 나온 「천도교강습소칙」이 중요한 사료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귀중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주현(2001a)은 1920년대에 천도교에서 세운 ‘시일학교’의 건립과 활동 그리고 교육 내용 등을 상세하게 고찰하였고, 성주현(2001b)에서는 1930년대에 천도교에서 간행한 『자수대학강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의 세 편의 논문은 하나같이 선구적인 연구이고 관련 주제에 관한 유일한 논고이다. 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천도교의 교육 활동이 1910년대의 강습소에서 1920년대의 시일학교로, 그리고 1930년대의 자수대학으로 점점 체계화 되어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1930년 전후에 천도교의 교육 커리큘럼에서 사용되었던 교재의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자수대학강의』에 수록된 「종교과」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천도교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했고, 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것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술 순서로는 먼저 초기 천도교의 「종령」과 1920년대의 『신인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천도교 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1930년대의 『자수대학강의』의 특징과 「종교과」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천도교의 교육활동과 커리큘럼

1. 천도교 강습소 커리큘럼

의암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대고(大告) 천도교’ 광고를 통해 천도교의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천도교의 본격적인 시작은 『종령(宗令)』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6년 손병희가 귀국한 이후부터이다(Lee, 2015: 13). 동학에서 천도교로의 전환은 교리, 의례, 조직 등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특히 교리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잇달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천도교의 종지인 ‘인내천(人乃天)’의 의미를 밝힌 교리서 『대종정의(大宗正義)』(1907)의 간행이다.

교리서의 출간은 1908년 교리강습소 설치를 통한 교리 교육으로 이어졌다. 1908년에는 “敎理講習이 係는 宗門要務라”고 하는 『종령』 제10호를 공표하여,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강습을 시행하고 규칙을 제정하였다(Lee, 2015: 140). 천도교가 설립한 강습소는 크게 종학강습소, 사범강습소, 교리강습소의 세 가지로 나뉜다. 종학강습소가 교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이고, 사범강습소가 교리강습소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면, 교리강습소는 사범강습소에서 양성한 강사가 교육하는 기관이었다(Sung, 2021: 203-204).

1909년 1월, 천도교는 ‘청년자제’ 교육을 위해 ‘특별사범강습소’를 설치하였다.

宗門大旨曰 性身雙保라 非宗教學이면 無以明性光이요 非社會學이면 無以揭身彩니 存性存身者- 烏得不受學이리오 故로 現自總部로 欲設師範講習所하야 敎育我青年子弟하니 各自敎區로 撰合格者 數人하야 俾就性身兩學하되 本所應選 規則은 如左參照함(Lee, 2015: 145. 밑줄은 인용자의 것).

이에 의하면 특별사범강습소의 교육 내용은 ‘성신양학(性身兩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신양학’이란 “성학(性學)과 신학(身學)을 모두 배운다”는 뜻으로, 특별사범강습소의 목적이 단순히 천도교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학(性學)’에 머물지 않고 현실 생활에 필요한 ‘사회학(身學)’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특별사범강습소의 커리큘럼도 교서(敎書)뿐만 아니라, 내외국지지(內外國地誌), 내외국역사(內外國歷史), 산술(算術), 법학통론(法學通論), 경제(經濟), 물리학(物理學), 생리학(生理學), 작문(作文), 체조(體操)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Lee, 2015: 145).

이후 천도교는 1911년 3월 『종령』 제71호에서 강습소의 규정과 소칙을 제정한다(Lee, 2015: 173). 당시의 『천도교강습소 규정』(『천도교강습소 규정 부소칙(附所則)』 수록)에 의하면, 강습소 강사는 천도교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교리가 아닌 일반 과목에 대해서는 외부인을 초빙할 수 있었다(Sung, 2021: 212). 강습소의 주된 목적이 “敎理를 講習하여 道德의 本旨를 確立하고 科學을 鍊習하여 보통 知識을 培養한다”에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서술한 ‘성신양학(性身兩學)’이

라는 천도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되고 있다(Sung, 2021: 213). 그래서 교육 내용 역시 ‘교리’, ‘본교 역사’, ‘창가(天德頌)’뿐만 아니라 조선어, 일어, 산술 등 일반 교과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리’의 경우에는 제1강년과 제2강년에는 특별한 교과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제3강년에 ‘구술’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Sung, 2021: 218-219), 별도의 교재가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12년 1월 『중령』 제94호로 ‘천도교종학강습소(天道敎宗學講習所)’ 규칙이 공포되었다. 교육 내용은 교서, 작문, 강해(講解)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목적은 “師範程度의 宗學講習所”, “高等講生을 募集 敎授하여 宗理의 發闡을 期圖하며 兼히 異日 各地講所의 敎授할 資料를 供給함이 爲可이기”라고 밝히고 있다(Lee, 2015: 187-189). 즉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걸맞은 교재발간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교역자 양성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2년에 설립된 종학원에서 이루어졌다. 종학원은 일반교육자의 자격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성에 설립되었는데, 2년 과정의 본과(本科)와 1년 과정의 예과(豫科)와 속성과(速成科)로 운영되었다. 교과목의 경우, 예과는 교리와 교회사, 철학개론, 국어, 영어, 한어, 수학, 지리, 역사, 음악 등으로 구성되었고, 속성과는 교리와 교회사, 종교철학, 종교사, 철학, 심리학, 논리학, 윤리학, 사회학, 생물학, 음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속성과 입학 자격을 신심이 독실하고 교리해석이 가능한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종학원이 단순히 천도교 교리 교육에 머물지 않고 교역자 양성에도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Lee, 2015: 231-233). 아울러 커리큘럼의 구성으로부터 교육 내용이 단지 천도교 교리에만 머물지 않고, 종교철학이나 종교사 또는 철학이나 윤리학과 같이 인문학 분야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천도교청년회에서는 1920년에 천도교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 임시강습소를 설치했다. 『남원군종리원』에 의하면, 1920년 2월 천도교청년임시교리강습회가 개최되었을 때 천도교 남원 교구에서도 최병현, 이강전, 유종석, 김영운, 정봉기, 강재득을 파견했다(Cho, 2014: 126). 당시에 임시교리강습소에서 수강했던 최병현이 소장한 『동창록』에 따르면, 강장은 오상준, 간무는 이준석과 박사직, 교리 강사는 오지영, 이돈화, 박사직, 법제·경제 강사는 윤익선, 상식 강사는 김기전, 시문(時文) 강사는 권덕규, 음악 강사는 이상준, 강술(講述) 강사는 유병민이었다. 최병현은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강의 주제는 ‘인내천의 기원’, ‘인내천의 진리’, ‘과학으로 본 인내천’, ‘이적과 인내천’, ‘주문과 인내천’, ‘후천개벽과 인내천’, ‘조화와 인내천’, ‘수심정기와 인내천’, ‘자유의지와 인내천’, ‘도의 관념과 인내천’, ‘생명과 인내천’과 같이 인내천을 중심으로 하는 천도교의 핵심 교리였다(Editorial Office, 2022: 96-104). 주목할만한 점은 ‘과학’이나 ‘자유의지’와 같은 개념들로부터 추측할 수 있듯이, 천도교 교리를 서양의 과학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비교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시일학교(侍日學校) 커리큘럼

한편, 이돈화, 정도준, 박달성 등은 1919년 9월 2일에 천도교 교리의 연구와 선전 그리고 조선의 신문화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천도교청년 교리연구부’를 결성했다. 이어서 1920년 4월에는 ‘천도교청년회’로, 1923년 9월에는 ‘천도교청년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천도교청년당은 천도교 교리 및 교회사를 통한 교화 및 선전을 위해 ‘시일학교’를 설립하였다.

시일학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 천도교의 최고 진리, 천도교와 사람의 관계, 천도교와 사회의 관계 등 기타 필요한 교양교육을 통해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Cho, 1927: 54-55). 기존에 중학원과 강습소 등이 있었지만, 보다 전반적이고 영속적으로 천도교의 진리를 연구하고 인내천주의를 보편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Kim, 1928). 따라서 시일학교는 교육기관의 측면보다는 ‘천도교 교학 정립’에 중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가 완비될 때까지는 『신인간』을 통하여 매월 사용할 교재 내용을 기재하여, 교리, 교사, 교론 그리고 상식을 한국어로 평이하고 간단하게 해석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Kim, 1928).

당시 시일학교 교재 편성 책임자였던 김영환은 『신인간』에 네 차례 연재를 하였는데 끝까지 완성하지는 못했다. 교육 내용은 『천도교서』와 『수운심법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Kim, 1928a, 1928b, 1928c, 1928d). 시일학교에 사용된 교재는 『천도교교리독본』과 『천도교체계약람(天道敎體系約覽)』 등 각종 교서와 『신인간』, 『당성(黨聲)』, 『농민』 등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었다(Bong, 1933: 16-17; Sung, 2001: 159-160). 이 중에서 『천도교교리독본』은 1926년에 천도교중앙종리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이돈화가 저술하였다. 특징은 천도교 교리와 역사 그리고 천도교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 대중과 여성 그리고 아동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순한글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동학과 천도교 출현의 당위성, 천도교의 지향과 목적, 수운 최제우의 유훈과 일화를 통한 사상, 심법, 도통 전수와 공동전수심법, 계명, 오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도교청년당은 시일학교 창설과 함께 1926년에 일반 당원의 지식향상을 위해 ‘신인간자학(新人間自學)’ 제도를 창설하였다. 1932년에는 신인간자학 제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원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과목으로 ‘당학(黨學)’을 설립했다. 당학은 천도교 교리와 역사, 조선어, 조선사, 농학, 체육 등으로 구성되었고, 기관지 『당성(黨聲)』을 통한 통신 교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Cho, 1935: 62-64).

1933년 4월 3일에는 천도교청년당 제7차 전당대회에서 자수대학강의(自修大學講義)의 발행을 결의하였다. 『자수대학강의』는 중등 학과를 마치고 그 이상의 학과를 수학할 길이 없는 처지의 조선 청년에게 전문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구성은 ‘종교과’, ‘철학과’, ‘정치과’, ‘경제과’, ‘사회과’, ‘예술과’, ‘체육과’ 등 7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Cho, 1935: 62-64) 각 과목마다 교재도 따로 집필되었다. 수준도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말 그대로 ‘대학’의

커리큘럼에 버금가는 내용과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중에서 인문학에 해당하는 과목은 철학과 종교인데, 철학과는 서양철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종교과는 중국 종교를 다루고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과 종교 과목으로 나누어서 서양철학과 동양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이로부터 천도교에서 서양철학과 중국사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커리큘럼과 교재개발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종교과’에 초점을 맞춰서 1930년대에 천도교의 종교 교육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중국철학과 중국종교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Ⅲ. 『자수대학강의』 「종교과」의 내용과 특징

1. 천도교의 동양사상 체계화 작업

『자수대학강의』 「종교과」의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천도교에서 그때까지 동양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개벽』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천도교에서는 일찍부터 타 종교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1910년에 창간된 『천도교회월보』에서는 전 세계의 종교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제4호(1910.11)부터 제11호(1911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각국종교 내력의 개기(概記)」를 연재하였고, 제97호(1918.08)부터 제201호(1927.09)까지 총 19회에 걸쳐 「세계종교사」를 연재하였다.

한편 동양사상을 서구적인 철학사의 형태로 소개한 것은 그보다 약간 늦은 1921년부터이다. 이해 3월에 나온 『개벽』 제9호에 강춘산(강인택)이 쓴 「동양도학의 체계여하(如何)」가 그것이다. 강춘산은 계속해서 제15호(2021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이 글을 연재한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중국철학의 흐름을 ‘도학’이라는 이름 하에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성은 <상중하>로 되어 있고, <하>는 다시 1에서 4까지 있다. 내용적으로는 맨 앞에 중국의 우주론으로 주역을 소개한 뒤에 고대철학, 중대철학, 근세철학을 서술하고 있고, <하-2>부터는 성리학(程朱學)만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고대철학에서는 유가, 묵가, 도가로 구분한 뒤에, 유가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도가에서는 노자, 열자, 장자의 사상을 철학, 윤리론, 정치론, 수신론 등의 범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 중대철학에서는 『회남자』, 동중서, 양응과 같은 한대의 철학을 다루고 있고, 근세철학에서는 주립계, 소강절, 장횡거, 장재와 같은 이른바 ‘북송사자(北宋四子)’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하-2>에서는 송명 시대의 성리학을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정, 사상채, 양귀산, 호오봉, 이연평, 주자, 진순, 육상산, 왕양명 등의 철학 체계를 자연철학, 천지론, 심성론, 공부론 등의 범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맨 마지막에 『이퇴계』 항목을 만

들어서 이퇴계의 전기와 학통 및 학술(사단칠정론)을 10줄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분량상으로도 책 한 권에 달하는 『동양도학의 체계여하』는 가히 100년 전에 한국에서 나온 『중국철학사』라고 일컬을 만하다. 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도교나 불교에 관한 서술은 거의 없고, 제자백가나 도가철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가철학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유학사 개론』이라고 보아도 된다. 이처럼 유학 중심의 서술로부터 저자가 말하는 ‘도학’은 ‘유학’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도학의 체계여하』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2012년에 나온 이행훈의 『동양 지식 체계의 계보화: 姜春山の 『東洋道學의 體系如何』가 유일하다(Lee, 2012).

한편 『동양도학의 체계여하』가 나온 지 3년 뒤인 1924년 3월에는 『개벽』 제45호에 김정설의 『노자의 사상과 그 조류의 개관』이 실린다(Kim, 1924). 범부 김정설은 김동리의 친형으로, 『최제우론』을 쓸 정도로 동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서정주가 “천재 중의 천재”라고 평가했던 사상가이다. 범부의 『노자의 사상과 그 조류의 개관』은 노자 철학을 ‘무’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도덕경』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과 함께 도가학파의 계보까지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국내 최초로 ‘노자철학’을 소개한 글이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동곡이 『개벽』 제52호에 『사상의 혁명』(Lee, 1924: 4-33)이라는 글을 통해 동양사상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총 30쪽에 달하는 이 글은 전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4장이 “동서사상의 대계: 그 차이”(16-21)이다. 여기에서 이동곡은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의 주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동양사상 부분은 다시 인도사상과 중국사상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사상에 대해서는 16~18쪽 사이에 서술되어 있는데, 공자의 정명주의, 노자의 무위주의, 묵자의 겸애주의와 양주의 이기주의,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사상으로 갈래를 나누고 있다. 아울러 이 중에서 “공자파가 중심 세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공자 사상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글 중간에 후스(胡適)의 『중국철학사대강』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글을 서술하는데 1919년에 나온 후스의 『중국철학사대강(상권)』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Kim, 2016: 56). 가령 “胡適씨의 自著 중국철학사대강에 “이름을 바르게 하기로 위주한다”하여 정명주의파라 하였다.”(Lee, 1924: 17)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실제로 후스의 『중국철학사대강(상권)』에는 「제4편 공자」의 제4장 제목이 ‘정명주의(正名主義)’이다(Hu, 2018: 68-77). 이에 의하면 ‘정명주의파’에서 ‘파’라는 학파명은 저자인 후스가 아니라 인용자인 이동곡이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저자인 이동곡은 1920년대 전반에 개벽사의 중국특파원으로 중국에서 활동하였다(Jung, 2019: 180). 또한 이동곡의 글에서는 ‘유가’나 ‘도가’와 같은 명칭 대신에 ‘공파(孔派)’나 ‘공자사상파’ 또는 ‘노자학파’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의 혁명’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전통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부터 알 수 있다.

퇴계니 우암이나 하는 이들의 성리설(…)은 아주 황탄한 소리에 지나지 않고, 쓸데없는 투쟁으로 인하여 당시 조야에 허다한 풍파를 야기하고, 도리어 500년 간의 경쟁과 사회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실재와 합리적 방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반 민중에게는 아무 교섭이 없었다(Lee, 1924: 13).

즉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형이상학적인 공리공론과 당파싸움만 일삼았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이동국은 철학의 기능을 인식론이나 수양론이 아닌 현실 변혁에서 찾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조선성리학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자수대학강의』 「종교과」가 나오기 이전에 천도교에서 발행한 『천도교회월보』와 『개벽』에서 동양사상을 다룬 글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세 편의 글은 각각 입장을 달리 하지만, 이른바 근대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라는 틀로 중국의 전통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자수대학강의』 「종교과」도 이러한 선행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종교과」의 내용과 특징

1933년 7월부터 매달 간행되기 시작한 『자수대학강의』 전 11권은, 신일철의 「해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으로 된 대학 강의록”이다(Lee et al., 1972: 1). 강의 대상은 천도교 청년당의 당원이고, 구성은 종교, 철학,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체육의 7개 과목을 3년 동안 수학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종교과」는 『신인철학』(1931)의 저자인 야뢰이돈화가 집필하였는데, 신일철의 「해제」에 의하면 “인내천주의의 입장에서 먼저 종교를 정의하고,” 이어서 “중국의 종교를 서양철학적 방법으로 해석하였고,” “중국종교사상사를 그대로 서술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천도교 종교철학의 형성을 위한 탐구라는 관점에서 강술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세 개의 글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지금의 관점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1) 「종교과」의 구성

「종교과」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론, 도교 그리고 유교이다. 구체적인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

제1장 인내천의 견지에서 본 종교의 신정의(新定義)

1)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수대학강의』는 1972년에 경인문화사에서 영인한 7개 강좌의 ‘합본’이다.

제2장 원시인의 종교의식과 종교 진화의 개념

1. 도교의 요령 (25-56)

가. 중국 본래의 종교와 도교

나. 노자 사상 개요

다. 열자 사상 개요

라. 장자의 개요

신선도의 개요

도교의 개창 및 경과

도교에서 숭배하는 신

도교의 경전의 총략: 『태상감응편』 범례, 『음양문』, 『공과격』의 요지

2. 유교 (57-84)

(1) 공자와 그의 교지

가. 공자의 소전(小傳)

나. 공자의 학설

다. 공자의 도

라. 인(仁)의 정의

마. 인(仁)에 도달하는 도

바. 천(天) 및 천명에 대한 것

사. 공자의 정치관

(2) 자사와 유교: 자사의 천인합일설, 자사의 윤리관

(3) 맹자와 유교: 맹자의 성선설, 맹자의 도덕설, 맹자의 수양법, 맹자의 정치설

(4) 순자와 유교의 관계: 순자의 예론

(5) 유교²⁾

갑. 주립계와 유교: 주립계의 본체론, 주립계의 인성설, 주립계의 윤리설

을. 장횡거와 유교: 장횡거의 귀신론, 장횡거의 인생관, 장횡거의 인성론

이상의 목차에서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도교’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유교를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종교의 범주에 넣어서 논하고 있고, 장이나 절을 상세하게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유교를 종교에 넣은 이유는 『자수대학강의』에서 「철학과」(김형준 집필)는 철저히 서양철학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과 절을 상세하게 나눈 것은 글의 목적이 ‘교재’나 ‘교과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종교과』 이외의 다른 글들도 모두 이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종교 강좌의 특징

“제1장 인쇄천의 견지에서 본 종교의 신정의(新定義)”와 “제2장 원시인의 종교의식과 종교

2) 제목에는 ‘유교’라고만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근대의 유교’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근대의’라는 말을 넣는 것이 적절한데 실수로 빠진 것 같다.

진화의 개념”은 종교 일반에 관한 내용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돈화는 인내천의 관점에서 종교를 새롭게 정의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종교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돈화에 의하면, 종교라는 용어는 락탄시우스가 만든 말로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종교의 정의 중에서 어떤 정의가 옳은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직관적 정신 현상으로서 신성한 절대적 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돈화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의 존재 이유를 인간의 심리적이고 경험적 사실에서 찾는다. 그리고 종교를 “人間性이 自己의 有限의 生活과 弱少한 能力을 自覺한 下에서 此現實의 生活以上の 어떠한 無限且偉大한 勢力 或은 人格者의 現存을 感하여야는 이와 人格的 交渉을 맺고져 하는 心理的 個人的 又 社會的發表라”라고 정의한다. 즉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이 종교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돈화는 종교를 인내천의 관점에서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단정한다(Lee, 1933:1-2). 이러한 종교 정의는 종교의 본질을 직관(intuition)과 감정(feeling) 내지는 “무한에 대한 감각”으로 정의한 슐라이어마허의 종교론을 연상시킨다(Schleiermacher, 1996: 22).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당시에 어떠한 종교적 지식이 유통되고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인간의 본질을 무궁성(종교심)에서 찾으면서, 인간의 무궁한(무한한) 본질이 종교적으로 표현될 때 시대에 따라 다신, 일신, 범신 등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러한 것들이 객관화됨에 따라 종교적 의식과 신화 등으로 드러난다고 하면서 종교의 기원에 접근하고 있다(Lee, 1933: 2). 또한 인간의 본질[사람성]을 무궁성과 함께 사랑[愛], 즉 상호부조에서도 찾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와 도덕의 기원이라고 말한다(Lee, 1933: 4-5).

『종교과』 2장은 종교 진화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종교가 인간 역사의 사실적 존재라고 말하면서 종교의 진화에 대해 논한다. 그에 의하면, 원시생활이란 법치(法治) 생활과 상대되는 술어로, 원시인들은 문자와 문자적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덕치(德治) 생활을 했다. 이것이 사람성의 상호부조의 본능이며,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행동 때문에 생존했고 관습화되었다. 그래서 원시인들의 생활과 종교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고, 원시인은 종교적 신조에 의해 덕치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Lee, 1933: 8-9). 이어서 원시종교는 “萬有를 靈魂視하는 世界觀”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면서 원시종교를 영혼에 대한 믿음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또한 당시 원시인들은 자연을 초자연적인 내지는 영적 인격적 존재에게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포의 감정이 생겨 그들과 교통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발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Lee, 1933: 9-10).

이상의 종교론에서 특징적인 점은 ‘신화’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돈화는 원시종교의 종교의식에서 특히 기록할 만한 것은 신화라고 하면서, 신화를 원시종교의 하나의 큰 문화이자 정신적 생활, 종교 발생의 모태로 보았다. 특히 그는 신화를 천지창조 신화, 영웅신화, 신혼(神婚)신

화 등으로 분류하면서 인문신화는 지혜, 죄 그리고 죽음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고대인들의 신화 생활은 그들의 덕치 생활과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당시 고대인이 지니고 있던 “만유가 모두 살아 있다”는 믿음을 ‘물오동포(物吾同胞)’와 ‘물오동류(物吾同類)’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Lee, 1933: 12). 이 표현은 장재의 『서명』에서 유래하지만, 이후에 19세기 동학사상이 최시형이 ‘천지부모’ 사상을 설파하면서 생태적으로 재해석하였다(『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 「삼경」). 이로부터 이돈화의 종교 이해에 동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돈화는 고대인들은 신화 생활을 통해서 신성한 덕치 생활을 하였다는 점에서, 인류의 원시적 신화는 인간의 무궁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시대이며 사람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시대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다신시대’로 명명한다(Lee, 1933: 12-13). 나아가서 석가와 기독교(예수)의 출현을 종교계의 일대 혁명 시대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의 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일신교)는 사회적 환경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인간적 절대신에 대한 신봉³⁾, 회망, 신앙(타력적 신앙), 수행(기도, 고행, 의례 등), 구제의 관념 등은 동일하다고 말한다(Lee, 1933: 13-14).

마지막으로 이돈화는 과학사상과 철학사상으로 인해 종교의 본질, 특히 일신교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고 범신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강의안에 의하면, 원래 범신관은 현대의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있었다. 가령 불교의 자력종(自力宗)이나 동양 특유의 유심(唯心) 사상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돈화는 범신관을 일신교의 대적(大敵)으로 본다. 그래서 종교의 진화를 ‘다신교 → 일신교 → 범신교’의 순서로 이해한다. 특히 과학사상으로부터 등장한 물질사상으로 인해 일신교 존재에 치명상을 주었지만, 이에 따라 일신교는 최후 운명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Lee, 1933: 15-16).

그렇다면 이돈화는 종교가 소멸하고 인간은 영원히 무종교 상태로 살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신교의 발달로 범신관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인간성에 맞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이상적 본질이 있고, 이상적 본질은 시대에 맞게 발전한다. 이돈화는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인간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종교적 생활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돈화에게 인간이 종교적 관점을 상실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상태의 멸망을 의미하고 인간이 동물계로 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돈화는 장래의 ‘신종교’는 그것을 종교라고 할지, 도(道) 또는 덕(德)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사상적 본질로부터 한층 더 미화되고 진리화되어 장차 인간의 이상적 생활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 즉 각 종교의 역사를 개괄하여 신

3) 물론 이돈화는 기독교의 인격적 신(神)과 석가의 무신론적 불(佛)을 구분한다. 하지만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절대 유일의 실재(實在)로서 믿는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본다.

종교의 본질을 드러내서 미래 세계의 도덕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이 『종교과』 강의의 목적인다고 밝히고 있다(Lee, 1933: 16-17). 이것으로부터 『종교과』의 의도가 “천도교와 같은 신종교 출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도교 강좌의 특징

이돈화의 도교 강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포박자』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도경(道經)의 경전은 5천여 권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책을 들자면 갈홍의 『포박자』이다. 도교의 학설은 다양하지만, 근본 사상은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ee, 1933: 54).⁴⁾

여기에서 이돈화는 『도덕경』이 아닌 『포박자』를 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가를 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도교에 대한 이돈화의 이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돈화는 『종교과』의 다른 곳에서 “도가의 중추적 이상은 신선술”(Lee, 1933: 27)이고, “도교의 정체는 신선도로부터 기인하였다”(Lee, 1933: 42)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노자의 사상이 한대에 이르러 신선설과 결합되어 도교가 되었다”(32쪽)고 서술하고 있다. 즉 ‘도교=신선도’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선도의 핵심이 『포박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러한 도교관은 이돈화가 ‘유불도 삼교’가 아니라 ‘유불선 삼교’(Lee, 1933: 14, 25)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선교(仙敎)’(Lee, 1933: 26) 개념을 사용하면서 “선교(仙敎)의 중심인 신선도”(Lee, 1933: 27)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돈화와 비슷한 도교 이해는 조선 말기의 이규경(1788~19세기 전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사편』에 수록되어 있는 『도장총설(道藏總說)』에서는 도교를 정의하면서 ‘신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신선이란 성명(性命)의 진(眞)을 보전하여 세상 밖에서 한가히 구하는 것으로 애오라지 의욕을 씻어버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여 생사의 경지를 초월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⁵⁾

그러나 도교의 정체를 ‘신선도’가 아닌 ‘탈(脫)신선도’로 볼 수도 있다. 신선도는 개인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지향이 강한 반면에, 도교는 모든 중생들의 교화를 지향하는 ‘성인의 가르침’(聖敎)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도교는 『포박자』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대표적인 문헌이 도교의 우주론을 서술하고 있는 5세기 초에 성립한 『삼천내해경(三天內解經)』이다). 『포박자』에 신선을 의미하는 ‘선(仙)’이라는 말은 무수히 나와도, ‘도교’라는 말은 찾

4) 원문 인용은 가독성을 위하여 현대문으로 약간의 윤문을 가했다. 이하도 마찬가지.

5)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 > 고전번역서 > 오주연문장전산고 > 경사편 2 - 도장류 1 > 도장총설을 참고하였다.

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도교의 최고신들은 ‘진인(真人)’으로 지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극진인(太極真人)’이나 ‘구진(九眞)’ 등이 그것이다. 도교에서 『도덕경』을 『도덕선경(道德仙經)』인 아닌 『도덕진경(道德眞經)』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양나라 때의 도사 도홍경(456~536)이 쓴 책도 『진령위업도(眞靈位業道)』나 『등진은결(登眞隱訣)』과 같이 제목에 ‘진’이 들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삼교(三敎)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불선’이 아니라 ‘유불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삼교’라는 개념 자체도 갈홍(3C~4C)의 『포박자』 이후에 성립하였다. 이돈화가 유불도가 아닌 ‘유불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최시형의 용례를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해월신사법설』 「천도와 유불선」).

이상으로부터 중국에서의 ‘도교’ 이해와 조선에서의 ‘도교’ 이해 사이에 모종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에서는 중국의 도교를 신선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이돈화의 『종교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돈화의 『종교과』의 두 번째 특징은 도장경 전체를 자기 나뉠대로 분류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도교의 경전의 총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 서술한 삼청삼부(三清三部) 36부 등의 구별은 도가(道家)의 학설에 따른 것이지만, 이제 오인(吾人)의 의견으로 이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철학적 서적이니, 천지만물의 원리와 발전을 논하는 것.

두 번째는 술수적 서적이니, 길흉을 예언하여 금기방술(禁忌方術)을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전기적 서적이니, 신선의 전기 계보를 말한다.

네 번째는 의술적 서적이니, 장생불사의 도를 강구하는 연기식신(鍊氣息神)의 술(術)을 말하는 서적이다. 대개 장생불사는 도가(道家)의 목적이므로 이에 도달하는 방법도 여러 종류이다(Lee, 1933: 51-52).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표현은 “오인(吾人)의 의견으로 이것을 보면”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의 관점에서 보면”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도장경은 3동 4부 12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돈화는 내용적으로 자기 나뉠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분류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대적인 학문 체계이다. 즉 첫 번째의 ‘철학적 서적’은 ‘철학’에 해당하고, 세 번째의 ‘전기적 서적’은 ‘역사’에 해당하면, 네 번째의 ‘의술적 서적’은 ‘의학’이나 ‘과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두 번째의 ‘술수적 서적’은 이들 범주에 넣기에 애매한 분야에 해당한다).

위의 서술에 이어서 이돈화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장생불사의 도를 다시 네 가지로 세분화고(辟穀(辟穀), 복약, 조식도인(調息導引), 윤리), 이어서 도장경의 성립을 간단히 소개한 뒤에, 송대 이후에는 “민중적 도교”가 성행하였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텍스트로 『태상감응편』과 『음양문』의 원문을 수록하는 것으로 『도교』 강좌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돈화가 비록 ‘도교=불로장생의 선도’라는 한국적인 도교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도교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⁶⁾ 아마도 당시의 천도교인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단지 도교사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서구적인 학문 체계를 의식하면서 분석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도교에 대한 내용을 천도교 커리큘럼에 넣었다는 점 자체가 동시대의 개화파나 척사파(유교)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선택이다.

4) 유교 강좌의 특징

유교 강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천(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공자를 다루면서 ‘천명’을(Lee, 1933: 61-62), 자사를 논하면서 ‘천인합일’을(Lee, 1933: 65-66), 각각 별도의 절을 마련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해석하면서 ‘천심(天心)’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天은 도덕적 행위의 규범이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天이 어찌 말이 있으리오마는 사시(四時)가 행하고 백물(百物)이 生한다”고 하였다. 天心으로써 心을 삼고 天이 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면, 수기치인의 목적에 달하는 도가 된다고 보았다(Lee, 1933: 61).

여기에서 이돈화가 인용한 공자의 말은 『논어』 「양화」에 나오는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이 생성된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이다. 마치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불언지교(不言之教)’, 즉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연상시키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돈화는 “天心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천심’은 『논어』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이다. 최시형의 『해월신사법설』에서 천어(天語)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다.

천어(天語)는 대개 강화(降話)에서 나오는 말을 일컫는다. 강화는 사람의 사육과 감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리와 천심(天心)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천어(天語)』).

내 항상 천어(天語)와 언어(人語)의 구별을 말하였거니와, 이심치심(以心治心)도 이 이치에서 생긴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 어찌 두 가지 뿌리가 있으리오. 다만 마음은 하나이지마는 그 작용(用)에 있어 하나는 이심(以心)이 되고 하나는 치심(治心)이 되나니, 이심(以心)은 천심(天心)이요 치심(治心)은 인심(人心)이니라(『이심치심』).

6) 참고로 도교의 최고신으로 알려져 있는 원시천존(元始天尊)이 천시천존(天始天尊)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48쪽), 아마 편집상의 오타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천심’은 천도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타고난 ‘한울마음’을 가리킨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한울말씀’, 즉 천어(天語)라는 것이 최시형의 해석이다. 이돈화의 『논어』 해석에는 이러한 동학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돈화는 공자의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한울마음’을 따라 묵묵히 행동하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 천도교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天’의 한글 표기를 ‘한울’로 하고 있는 점도 천도교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Lee, 1933: 58).

‘천심’이나 ‘한울’이 천도교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면, ‘주관파’나 ‘객관파’와 같은 개념은 당시 일본을 통해 수용된 서양철학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이라는 서양철학적 도식을 중국철학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맹자는 내면적 수양을 주로 하여 덕행으로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증자 부류의 주관파에 속하지만, 순자는 채소옹대의 예로부터 대도에 오입(悟入)하여 학문으로써 그 이상을 발휘하고자 한 자하 일파의 객관파에 속한 자로 볼 수 있다(Lee, 1933: 76).

주관파인 사맹(思孟) 이자(子子)는 성(誠)이 내 몸에 있으며 인의(仁義)가 내 몸에 구비되었다고 한데 반해서, 객관파인 순자는 예(禮)는 사람의 천성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Lee, 1933: 78).

여기에서 이돈화는 맹자를 주관파, 순자를 객관파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면의 수양을 중시하는가, 외면의 행위를 중시하는가에 두고 있다. 원래 주관과 객관은 서양철학에서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범주이다(가령 ‘주관적 판단’이나 ‘객관적 지식’과 같이). 그런데 이돈화는 이것을 수양론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양철학에는 수양론이라는 독립된 분야가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수양론을 ‘서양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인식론적 범주를 적용한 데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례로는 맹자의 정치사상에 대한 해석을 들 수 있다. 이돈화는 맹자의 이른바 ‘역성혁명’ 사상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맹자는 천명의 거취로 말미암아⁸⁾ 주권의 득실이 결정되고, 선양방벌(禪讓放伐) 역성혁명의 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이 점에서 맹자는 중국의 전통적 사상을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그의 민주적 사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혼동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왜 그런가 하면 맹자는 백성을 주로 하며 본으로 하였지만, 백성이 주권적 주이며 주권적 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권은 어디까지나 인민이 귀복(歸服)하는 바에 따라 천명을 받드는 군주에

7) 원문은 ‘二字’인데 내용상 ‘二子’의 오타인 듯하다.

8) 원문은 ‘거취에말미어’인데 ‘거취에 말미암아’의 오타인 듯하다.

게 있다는 것이다(Lee, 1933: 75).

여기에서 이돈화는 ‘민본’과 ‘민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맹자로 대변되는 유학의 정치철학은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는 의미에서의 민본사상이지, ‘백성이 정치의 주권자’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사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이돈화가 유학의 정치사상을 성급하게 서양의 정치사상과 일치시키지 않고,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돈화가 “(5) 유교”에서 ‘장횡거의 귀신론’을 다룬 점도 당시로서는 독특하다고 생각된다. 강춘산의 『동양도학의 체계여하』에서는 본체론과 윤리론(심성론도 겸함)만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학을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철학적 유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적 요소로 보이는 ‘귀신론’은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유학을 지칭하는 명칭에서도 나타난다. 『동양도학의 체계여하』에서는 ‘유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돈화의 『종교과』에서는 ‘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아마도 ‘교’를 ‘종교(religion)’와 동일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서술 방법상에서 보면 이돈화의 『종교과』가 더 ‘철학적’인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해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서양철학적 개념을 사용하면서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성리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받는 ‘주자의 유교’는 다루지 않고, 주자학의 전사에 해당하는 주렴계와 장횡거만 다룬 점도 독특하다. 주자학은 조선에서 잘 알려진 반면에 주렴계와 장횡거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논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서술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천도교에서 근대적 지식체계를 전파하기 위해서 조직한 교육 과정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도교에서는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리 교육과 근대 교육의 조직과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습소’의 형태로 시작하였다가, 1920년대에는 ‘시일학교’라는 명칭의 학교로 체계화되었고, 1930년대에는 ‘자수대학’이라는 일종의 ‘독학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자수대학에서는 『자수대학강의』라는 교재를 편찬하여, 대중들에게 중국의 종교, 서양의 철학, 정치, 경제, 예술 등의 고급 지식을 보급하였다.

특히 『자수대학강의』 『종교과』에서는 ‘인내천’의 관점에서 종교 개념을 정의하는 등 천도교적인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유교에 대한 서술에서도 ‘하늘’과 관련된 사상에 주로 초점이 맞춰

져 있고, ‘천심(天心)’과 같은 동학적 개념으로 공자의 사상을 해석하고 있으며, 한글 표기도 ‘한울’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도교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전개된 도교라기보다는 그것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교(仙敎)’를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학에서도 중국의 도교를 ‘선(仙)’으로 지칭했다는 점이다(『해월신사법설』 「天道와 儒佛仙」). 반면에 자신들에 대해서는 ‘도인(道人)’이나 ‘도가(道家)’라고 불렀다(『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즉 중국의 도교는 선교로 이해하고, 자신들은 도교적 개념으로 자칭한 것이다. 『종교과』에서 도교가 비중있게 다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불교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선교와 도교라는 개념적 차이는 있지만, 이돈화가 불교보다는 도교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참고로 최제우의 『용담유사』에는 ‘지상신선(地上神仙)’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교훈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수대학강의』 「종교과」는 비록 ‘종교’ 분과에서 논하고 있지만 철학적인 분석과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저자인 이돈화의 학문적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반면에 『자수대학강의』에서 「종교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양에 관한 강좌인데, 이에 대한 분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Kim, M. S. (2016). Writings on China and Modern Perception in Kai-Byuk.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Cho, K. T. (2014). The Activities of Namwon Donghak Believers and Namwon Cheondogyo Believers after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33, 97-136.
- Lee, H. H. (2012). Genealogy of Oriental Knowledge Systems by Gang Chun-san.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46, 247-276.
- Schleiermacher, F. *Ü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Berlin: Realschulbuchhandlung. Crouter, R. (trans.) (1996). *On Religion: Speeches to Its Cultured Despis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ng, J. H. (2001a). The Study on the Nation Education by Chondogyo: Youth Company. *The Civilization Journal*, 2(1), 123-170.
- Sung, J. H. (2001b). A Study on An Essay on Cultural Education in Colleges: In Relation to Chondogyo.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135-162.
- Sung, J. Y. (2021).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Chondoism Doctrine Institution in the 1910s.

- The History Education Review*, 33, 201-240.
- Jung, H. J. (2019). Socialist Linkages and Choseon New Culture Movement of Northeast Asia in the 1920s: Focus on Gaebyeok(開闢) of the Cheondogyo(天道教) Magazine.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34(2), 175-203.
- 김영환 (1928). 시일학교 교재편성에 임하여. 신인간, 24. 서울: 신인간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H. (1928). Organizing Si-ill School Materials. *New Humanity*, 24. Seoul: New Humanity Press.
- 김영환 (1928a). 시일학교 교재. 신인간, 25. 서울: 신인간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H. (1928a). Si-ill School Materials. *New Humanity*, 25. Seoul: New Humanity Press.
- 김영환 (1928b). 시일학교 교재. 신인간, 26. 서울: 신인간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H. (1928b). Si-ill School Materials. *New Humanity*, 26. Seoul: New Humanity Press.
- 김영환 (1928c). 시일학교 교재. 신인간, 28. 서울: 신인간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H. (1928c). Si-ill School Materials. *New Humanity*, 28. Seoul: New Humanity Press.
- 김영환 (1928d). 시일학교 교재. 신인간, 29. 서울: 신인간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Y. H. (1928d). Si-ill School Materials. *New Humanity*, 29. Seoul: New Humanity Press.
- 김정설 (1924). 노자의 사상과 그 조류의 개관. 개벽, 45. 서울: 개벽사. (Translated in English) Kim, J. S. (1924). An Overview of Laozi's Thought and its School. *Re-creation*, 45. Seoul: Re-creation Press.
- 봉곡 (1934). 侍日學校 開에 對하여. 신인간, 71. 서울: 신인간사. (Translated in English) Bong, K. (1934). Opening Si-ill School. *New Humanity*, 71. Seoul: New Humanity Press.
- 이돈화 (1933). 天道敎創建史. 서울: 천도교중앙종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1933). *The Founding History of Ch'öndogyo*. Seoul: Ch'öndogyo Jungangjongniwön.
- 이돈화 외 (1972). 自修大學講義(합본). 서울: 경인문화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D. H. et al.. (1972). *The Home College Lecture*. Seoul: Kyongin Culture Press.
- 이동국 (1924). 사상의 혁명. 개벽, 52. 서울: 개벽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D. K. (1924). The Revolution of Thought. *Re-creation*, 52. Seoul: Re-creation Press.
- 이동초 편저 (2015). 天道敎會 宗令存案. 서울: 모시는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Lee, D. C. (2015). *The Encyclical Letter of Ch'öndogyo*. Seoul: Mosinunsaramdul.
- 조기간 (1934). 天道敎靑年黨小史. 서울: 天道敎靑年黨本部. (Translated in English) Cho, K. K. (1934). *A Brief History of the Ch'öndogyo Youth Party*. Seoul: Ch'öndogyo Youth Party Headquarters.
- 조종오 (1927). 시일학교 직원에게. 신인간, 11. 서울: 신인간사, 54-44. (Translated in English) Cho, J. O. (1927). To Si-ill School Staff. *New Humanity*, 11. Seoul: New Humanity

Press, 54-55.

편집실 자료소개 (2022). 남원교구 최병현 관련사료. 신인간, 862. 서울: 신인간사, 96-104.
(Translated in English) Editorial Office (2022). Introduction to resources: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Byung Hyun Choi in Namwon Diocese. *New Humanity*, 862, 96-104.

胡适. 中国哲学史大綱. 北京: 中華書局. (Translated in English) Hu, Shi (2018). *Outline of the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Beijing: Chung Hwa Book Co.